



충남도립대학교의 새로운 '선장'

올해 4월 29일 우리 대학에 허재영 총장께서 제6대 총장으로 새로이 취임하였다. 이에 기자는 6월 16일 총장실에서 새로운 총장을 인터뷰하여 궁금한 사항에 관해 알아보았다.

허재영 총장 취임!

허재영 총장은 이전까지 대전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우리 대학으로 온 것인데, 우리 대학의 총장공모에 지원한 동기를 묻는 기자에게 "충남도립대학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커 앞으로 보다 훌륭한 대학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총장은 공모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5가지의 공약을 제안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 기자에게는 다섯째 공약이 가장 마음에 든다.

첫째,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겠다.

둘째, 우리 대학은 도립대학교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셋째, 대학의 총장으로서 대외적으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넷째, 우리 대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대학과도 보다 광범위하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겠다.

다섯째,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들 위주의 대학을 만들겠다.

한편 총장은 자신의 가장 인간적인 매력 포인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대화와 타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총장에게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려는 의욕과 열정이 매우 강하고, 권위적이지 않으며 매우 소탈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총장께서 공약한 사항들을 잘 이행하여서 우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특히 학생들을 배려하는 대학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인터뷰 관련 내용은 2면에 계속

❖ 문은주 _ cnsu2017@cnsu.ac.kr

> 위스토리 01

급변하는 환경 ... 우리대학의 미래는? 대학발전위원회 개최



출산을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요즘 교육부에서는 대학들의 강제폐교(퇴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9곳의 대학이 문을 닫았으며 현재 한중대와 대구외대 및 서남대가 10번째로 폐교될 위기에 놓여있고, 대구 미래대는 자진 폐교를 하였다고 한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학 폐쇄 절차 추진은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우리 대학에서도 올해 6월 2일 대학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 6월 30일에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학발전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수립하는 것인데, 회의에서의 주요 토론사항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우리 대학의 정체성 확립 및 비전 재정립과 이에 따른 중장기 발전 목표 설정

둘째,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도출

셋째, 우리 대학의 자립성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

향후 여기서의 토론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은 대학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 발주를 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 방향에 관하여 대학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7.13~14일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대학발전위원회는 총 19명의 위원(위원장 허재영 총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외부위원으로는 충남도청 교육법무담당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승호 교수, 공주대학교 양병찬 · 조근자 교수,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 송병국 교수, 충남대학교 이병욱 교수,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박성호 원장이, 내부위원으로는 교수협의회장 박창원 교수와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교수, 사무국 정은택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각 계열별로 2명씩의 교수를 선정하였는데 인문사회계열은 양석진 · 광영길 교수가, 공학계열은 백경렬 · 이원구 교수가, 자연보건계열은 양조산 · 양노열 교수가 위촉되었다. 그리고 학생대표로는 총학생회장이 위촉되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 우리 대학이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올바른 방향 설정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해본다.

❖ 문은주 _ cnsu2017@cnsu.ac.kr

INSIDE

02

Interview 허재영 총장
맞춤형 취업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산학협력단'의 이모 저모

03

일요일 연장개관 도서관
심화학습실 이용 소감
공무원배출현황

04 05

학생들의 Gym을 덜어주는 해오름관
장학금 제도 알아보기
등록금 / 휴식공간 / 생활관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개교 20주년 기념행사

06

4차 산업혁명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

07

대학생 어학연수 공동 추진
현장체험프로그램 경찰행정과
MT에서 장난삼아 치약사건
해오름제의 뒷이야기

> 위스토리 01

✦ 문은주 _ cnsu2017@cnsu.ac.kr

Interview

허재영 총장

총장께서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학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의 학생들보다 학생들 간의 사이가 친밀한 관계이며 또한 학생들과 교수 간의 사이도 매우 가깝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취임하신 후 현재까지 파악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학은 취업을 위주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취업률을 우선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직 진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 외에 민간 분야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공직으로의 진출과 민간영역으로의 진출을 잘 정리해서 공직 진출을 할 사람에게는 공직 진출 쪽으로 지원을 하고, 민간영역으로 취업할 사람은 다양하게 여러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산을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대학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학령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은 등록금이 적고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취업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평생교육입니다. 즉 정규 입학시험을 보고 들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목을 교육하는 취업교육과, 교양이나 취미를 위해 또는 자기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 평생 직업대학으로서의 정규과정 및 비정규과정을 잘 활용하면 학령기 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스토리 02

✦ 이해진 _ cnsu2017@cnsu.ac.kr

평생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맞춤형 취업지원 대학일자리센터



올 6월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그런 날씨였지만 학생들은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위하여 벌써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마음은 다급하고 초조해지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뚝족한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기만 한 일이다. 그런 학생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충남도립대학교의 대학일자리 센터(센터장 박민호 교수)이다. 이곳은 성향이 다른 각 학과마다 그에 맞는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상담사가 여러 명 있다. 우리는 각 학과의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끝이다. 물론 타인이 본인의 미래를 전 뒤집듯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 하지만 영향은 끼칠 수 있다. 대학일자리 센터는 분명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복권 같은 것이고 우리는 복권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상담이지 않을까 싶다.

혼자만의 힘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아무리 재주가 좋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주변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은 그들의 미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20대이지 않은가. 저마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학생들의 앞길에 누구보다 밝기를 바란다면 경험이 많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그것을 도와줄 좋은 길잡이 중 하나가 대학일자리센터이다.

찬란하게 빛나던 대학생들이 지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발돋움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선배'라는 타이틀을 벗고 또다시 '막내'가 되어 새로운 공간에 입장하게 된다. 힘들게 공부를 마쳤지만 우리는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한다. 저마다의 고민의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은 가슴 속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각자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우리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한 청춘이라는 것이다. 힘든 일 많고,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커서가 아닐까 싶다. 아직 미숙한 우리이지만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전문적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빛날 당신의 미래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구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미래에 좀 더 여유롭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만족스럽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평소에 자녀들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하였고, 벽을 두지 않고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청년취업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대학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의 청년취업난은 하나의 대학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특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채합격자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민간기업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목표가 아니지만 한 두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보다 많은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다보면 취업의 어려움을 조금씩 줄여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앞으로 전폭적으로 청년취업난을 해결할 프로그램을 만들 것 같고 우리들은 그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해서 해 나가면 취업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위치한 청양은 비교적 작은 지역이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시골에 있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계발해 나간다면 매우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 바쁘신 일정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스토리 03

✦ 자료제공 _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총괄부서 ‘산학협력단’의 이모 저모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출범
2017년 재정지원 사업예산 30억원

‘산학협력단’은 충남도립대학교의 중장기 발전과 연계하여 국가 및 지역 사회의 Best local partner 역할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산학협력 사업총괄·회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산업체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우리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단의 구성은 단장(김홍진 교수)을 중심으로 팀장(공업 6급), 대학회계직 7급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별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

산학협력단의 2017년 예산은 30억원에 달하고, 주요사업으로 2017년도 선정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11억원), LINC+ 육성사업(8억3천6백만원), 풀뿌리 기업육성사업(2억1천8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사업(1억1천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사업(3억2천1백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2억4천5백만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립대 LINC+사업단(단장 백경렬 교수)은 7월 12일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출범식에도 참석하였는데, 이번 출범식은 그 동안 크게 2개의 사업유형으로 각각 선정·평가가 진행되어 사업이 확정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대 75개교와 전문대 59개교 등 총 134교가 참여하였으며, 사업단 관계자 약 1,200여명이 참석하였다. LINC+사업은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혁신 지원, 현장적응력 높은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충남도립대는 산학협력 고도화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허재영 총장은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LINC+ 사업을 통하여 지역 산업과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과 충남의 발전에 기여하는 도립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위스토리 04

✧ 이다은 _ cnsu2017@cnsu.ac.kr

면학분위기 확산과 지역주민 위해 개방 확대 실시 일요일 연장개관 도서관

충남도립대학교는 그 동안 토요일까지만 개방했던 도서관을 2017년 6월 11일 부터 일요일에도 182석 규모의 일반열람실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격 개방하였다. 열람실 출입을 위한 이용증은 무료이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이용문의는 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041-635-6662, 6643)로 하면 된다.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은 첨단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스마트 도서관으로 67,000권의 장서에 자동운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86㎡, 열람실 182석, 심화학습실 56석, 멀티미디어실 25석, 스터디룸 4곳, 영화관람실, 소강당을 갖추고 있으며,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다. 허재영 총장은 "현행 토요일 개관을 일요일도 개방하여 군민들의 학습 및 지식, 정보 욕구 충족을 높여주고자 한다"고 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도민의 대학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열람실 이용은 도서관 1층 로비 '좌석 발급 시스템'에서 좌석을 배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배정받은 좌석을 이용한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거나 자리를 비운지(출입게이트 이용) 1시간이 넘게 되면 배정받은 자리가 자동퇴실 처리된다.



➤ 위스토리 05

✧ 안종현 _ reds419@naver.com

심화학습실 이용 소감

심화학습실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집중학습 공간으로 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선발시험을 치른 후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예, 성적우수자, 학과장 추천자 등)이 주로 입실한다.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지는 방학기간 동안에도 교내 도서관 2층에 위치해 있는 심화학습실은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에 정진하기를 원하는 재학생들을 위해 평일 19시부터 23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경찰행정과 2학년 재학생으로 경찰직을 준비 중에 있던 나는 방학기간 동안 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곳을 찾던 도중 심화학습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심화학습실을 이용하면서 느낀 바로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정숙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였고 면학분위기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어 학생들이 각자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이다. 심화학습실에는 약 40여명의 재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들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이용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였고 충남도립대학교를 대표하는 재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아우라가 흘러넘쳤다.

개교 이래로 현재 우리 학교가 배출한 공직자(임용예정자 포함) 수가 총 665명이라고 하는데 그 수가 굉장하다. 최근에는 3년 연속 40명 이상의 공무원을 배출하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공무원 양성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재학생으로서 뿌듯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갈 우리나라와 우리 대학의 미래인 우리들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정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방학 동안에도 심화학습실 학생들 모두가 이러한 멋진 미래를 그리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은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라는 뜻으로, 심화학습실 운영에 참여중인 인원들을 비롯한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가고 있는 충남도립대학교 전 재학생들에게도 현재의 힘든 시간이 지나고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그런 달달하고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길 빌어본다.



➤ 위스토리 06

✧ 자료제공 _ 학생지원처 공무원 채용담당 송승훈 선생

1998년 개교, 2000년 1회 졸업부터 2017년 1월까지 공무원배출현황

합격자 현황 : 2016년 42명(공채 32명, 경력경쟁 10명) 총 665명

충청남도과 시·군은 2017년 10월말에서 11월초 사이에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소정의 자격을 갖춘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번에는 7개 학과(자치행정, 경찰행정, 건설정보, 환경보건, 컴퓨터정보, 작업치료, 소방안전) 17명(道 7명, 시·군 10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에서 일정기간 기초 실무교육을 받은 후, 2018년도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된다.

충남도립대학교 공무원 누적합격자 수는 총 665명이고, 2016년도 합격자 42명(공채 32명, 경력경쟁 10명)으로 명실상부한 공무원 진출대학으로 손색이 없다. 대학은 공무원 양성을 위해 도서관 내에 심화학습실운영을 비롯하여 인터넷 강의 지원, 방학 무료 특강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한다.

※ ()안의 인원은 공채현황

학과별	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계	665 (331)	23	28	23 (3)	18 (5)	20 (5)	31 (14)	43 (16)	45 (18)	42 (18)	45 (19)	43 (19)	28 (15)	30 (15)	39 (25)	59 (46)	44 (32)	62 (49)	42 (32)
건설정보과	49 (11)	3	4	3	3	4 (2)	3 (2)	5	2	2	2	3 (1)	2	1	1 (1)	4 (1)	3 (2)	3 (2)	1
환경보건과	30 (12)	2	3	-	1	1	2 (1)	2 (1)	2 (1)	2 (1)	1	3 (1)	-	1	1 (1)	2 (1)	5 (4)	1 (1)	1
소방안전관리과	186 (108)	5	10	8	5	6 (2)	10 (5)	10 (5)	9 (4)	14 (9)	13 (8)	14 (10)	9 (7)	9 (6)	13 (10)	15 (13)	5 (3)	11 (8)	20 (18)
전기전자과	11 (2)	1	-	1	-	1	1	2	2	1	-	-	1 (1)	-	-	1 (1)	-	-	-
컴퓨터정보과	21 (3)	1	2	1	-	1	1	2	1	1	3 (1)	3	1	-	1	-	1 (1)	1 (1)	1
자치행정과	181 (73)	6	3	6 (2)	6 (4)	3	9 (4)	11 (3)	9	12 (1)	13 (6)	13 (6)	8 (3)	15 (6)	16 (8)	8 (3)	15 (9)	22 (15)	6 (3)
경찰행정과	40 (36)	-	-	-	-	-	-	-	-	-	2	1	1	1 (1)	2 (2)	10 (10)	5 (5)	12 (12)	6 (6)
토지행정과	110 (84)	2	3	2 (1)	1 (1)	2 (1)	3 (2)	8 (7)	17 (13)	8 (7)	8 (4)	2 (1)	5 (4)	2 (1)	4 (3)	18 (17)	8 (7)	11 (10)	6 (5)
호텔관광외식과	14	1	2	1	1	1	1	2	1	1	1	2	-	-	-	-	-	-	-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13 (1)	1	1	1	1	1	1	1	2	1	1	1	-	1 (1)	-	-	-	-	-
헤어뷰티과	1	1	-	-	-	-	-	-	-	-	-	-	-	-	-	-	-	-	-
작업치료과	9 (1)	-	-	-	-	-	-	-	-	-	1	1	1	-	1	1	2 (1)	1	1

2017년 충남도립대학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공고

- 선발인원 : 7개 학과 17명 (도 7, 시·군 10)
- 원서접수 : 2017. 9. 20(수) ~ 9. 22(금) / 3일간
- 선발고사 : 2017. 11. 4(토) 10: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및 학생지원처(041-635-6648)로 문의하세요.

› 위스토리 07

❖ 강전석 _ tt0850@naver.com

학생들의 Gym을 덜어주는 해오름관

해오름관에는 소강당, 헬스장, 체육관 등이 설비되어있어 현재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체육관의 경우, 우리 대학의 농구 동아리 B와 올해 신설된 배드민턴 동아리가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경찰행정과의 체력장이 되기도 하는 장소이다.

많은 학생들이 해오름관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편의성이 좋아야 할 테지만 학생들의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헬스장의 경우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아 다음에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고 물품도 분실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얼마 전부터 근로장학생으로 임명된 학생들이 헬스장을 관리해주고 있다.

하지만, 체육관도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오름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외부인들도 학생들과 농구를 즐기기도 한다.

교내 농구동아리 B의 회원인 한 학생은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 “전광판도 작동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학교 차원에서 빌려주는 농구공은 어떠한 물음에는 “공의 질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비를 통해 따로 공을 준비한 실정” 이라고 답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최근 구내식당도 새단장해주었다.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관에도 지원을 해준다면 학생들의 체육관 이용률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위스토리 07

❖ 황예슬 _ cnsu2017@cnsu.ac.kr

장학금 제도 알아보기 한국 장학재단

현재 정부에서는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대책으로 많은 대학생들에게 여러 제도의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는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회원가입 ➊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➋ 가구원동의(부모/배우자) ➌ 서류대출대상자는 온라인 서류제출 순으로 이루어진다. 가구원 미동의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로 장학금지급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현황을 통해서 서류제출의 제외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80점 이상을 취득(100점 만점 기준)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외에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지방인재 장학금 등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 많은 학생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은 지난 2009년부터 4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고 2013년도, 2014년도를 걸쳐 22%의 등록금 인하가 결정되어 도립대학의 학생이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은 1,065,500원, 공학·자연·과학계열은 1,292,500원으로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등록금이 매우 저렴한 편이다.

종 류	수혜인원	대상자	지급액
전체수석입학	1	전체입학성적 최우수자	전 학년 등록금면제
전체차석입학	1	전체입학성적 차석자	1년간 등록금 면제
학과별우수(수석)	학과별 각 1명	각 학과성적(입학)수석자	1학기 등록금 면제
학과별우등(차석)	학과별 반수 적용	각 학과성적(입학)차석자	등록금의 60%
성적우수(격려)	해당자	각 학과성적(입학)10%이내 해당자	등록금의 40%

※ 전체수석, 전체차석, 학과별 우수입학자의 국가장학금 수혜의 경우, 일정 규모의 학업장려금 차등 지급

› 위스토리 08

❖ 배지혜 _ cnsu2017@cnsu.ac.kr

합리적인 등록금 제도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작년 한해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내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다른 대학들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립대학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데다가 우리 대학 학생들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이 약 90% 이상 차지함에 따라 거의 모든 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근로 장학 제도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용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 학업 유지에 필요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있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요즘같이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 시대에 이와 같은 사정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돈을 빼앗는 대학이 아닌 베풀어주는 착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 위스토리 09

❖ 문형국 _ ansgudmr3@naver.com

다양한 휴식 공간

고교시절 학교시설은 필수 시설인 교실, 교무실, 급식실, 보건실 정도 밖에 없었지만, 우리 대학에는 다양한 여가 시설들이 있다. 몸을 강인하게 다져 줄 헬스장, 탁구장과 당구장 그리고 피곤한 몸을 위한 안락한 휴게실, 연인이나 친구끼리 즐길 수 있는 커플 영화관 등 선택의 여지가 다양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여가시설들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지 아닐까?



› 위스토리 10

❖ 이다은 _ cnsu2017@cnsu.ac.kr

대학 선택만큼 중요한 부분인 생활관

학교생활의 지친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편안한 집이 있어야겠죠? 우리 대학은 주공아파트를 생활관으로 하여 1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가스렌지도 있어 친구들과 원하는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만...

기숙사 내에서의 휴연이나 고성방가는 제발 삼가해 주세요~~.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1. 전형일정

모집시기	모집단위	전형유형 (대분류)	원서접수				면접일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인터넷접수		창구접수				
			시작	마감	시작	마감			
수시 1차	전학과	일반/특별 정원외전형	2017. 9. 11(월)	2017. 9. 29(금)	2017. 9. 25(월)	2017. 9. 29(금)	2017. 10. 12(목)	2017. 11. 2(목)	2017. 12. 18(월) ~ 2017. 12. 21(목)
수시 2차	전학과	일반/특별	2017. 11. 7(화)	2017. 11. 21(화)	2017. 11. 15(수)	2017. 11. 21(화)		2017. 12. 14(목)	2017. 12. 18(월) ~ 2017. 12. 21(목)
정시	전학과	일반/특별	2017. 12. 30(토)	2018. 1. 12(금)	2018. 1. 8(월)	2018. 1. 12(금)		2018. 2. 2(금)	2018. 2. 7(수) ~ 2018. 2. 9(금)

※ 면접: 작업치료과(정원외전형), 정원외전형(특수교육대상자), 독자전형(국제결혼이주자)만 실시

※ 정시등록결과 미등록 인원 발생시에 추가모집합니다

2. 모집계획인원

정원내 전형

★ 3년제 학과

구 분	계열(학과)	입학 정원	정원내전형						정시		
			수시 1차				수시 2차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유공자	이주자					
공 학 계	건설정보과	37	26	7			2	1	1		
	환경보건과	39	32	3			2	1	1		
	소방안전관리과	54	32	4	1		6	2	9		
	전기전자과	39	30	2			6		1		
	컴퓨터정보과	39	31	6			1		1		
인 문 사 회 계	자치행정과	주간	59	37	7			5		10	
		야간	23		16		2		3		2
	경찰행정과	38	22	3			5		8		
	토지행정과	39	23	2			4		10		
자 연 과 학 계	호텔관광외식과	43	34	3			5		1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39	26	2			8	2	1		
	헤어뷰티과	52	25	24			1	1		1	
	★작업치료과	30	24				4		2		
합 계		531	342	79	1	2	49	10	45	3	

정원외 전형

★ 3년제 학과

구분	계열(학과)		모집 인원	수시 1차				
				대졸자 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공 학 계	건설정보과		5	1	1	1	1	1
	환경보건과		5	1	1	1	1	1
	소방안전관리과		4		2	2		
	전기전자과		5	1	1	1	1	1
	컴퓨터정보과		5		1	2	1	1
인 문 사 회 계	자치행정과	주간	5		1	2	1	1
		야간	2					2
	경찰행정과		5		2	2		1
	토지행정과		2		1	1		
자 연 과 학 계	호텔관광외식과		5	1	1	2		1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5	1	1	1	1	1
	헤어뷰티과		8	1	1	3		3
	★작업치료과		2		1	1		
합 계			58	6	14	19	6	13

3. 2018학년도 지원자 유의사항

- 1) 지원방법: 전문대학을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음
- 2) 복수지원 금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 (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금지
- 3) 이중등록 금지: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개교 20주년 기념행사 2018년 계획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19일에 개교하여 내년이면 개교 20주년이 된다. 이에 우리 대학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념하고 새로운 대학발전계획을 널리 선포하고자 '20주년 기념 사업단'에서는 성대한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사 발간 및 기록물 전시이다. 우리 대학이 첫 삽을 뜰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자취를 책으로 발간하고, 전시장에 관련기념물 등을 전시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홍보용 책자를 별도 제작하여 자치단체, 언론사, 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념식 및 대학발전계획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기념식은 모두 1, 2부로 나누어 진행될 계획인데 1부에서는 학생동아리 공연, 외부단체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기념식과 대학발전계획 선포식을 통해 우리대학의 비전을 널리 선포하게 된다.

셋째, 다양한 축하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실시되는 대학축제 및 체육대회를 2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졸업생 홈커밍데이 및 20대 유명인 특강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자 다채롭게 계획하고 있다.

향후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제시 및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향후 세부 추진일정

추진내용	2017년도												2018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엠블럼 개발																
20년사 발간																
20년사 기록물 전시																
기념식																
기념식수																
축하행사																
대외홍보																
자료실 구축																

> 칼럼 01

❖ 컴퓨터정보과 이원교교수

새로운 역량을 제시하라!

4차 산업혁명 1부 2부는 45호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 바람



바이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구글의 알파고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인간계 최강으로 불리던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것은 인간이 기계에 패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바둑에서만 뿐만 아니라 취업 현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 로봇 · 생명과학 등이 기존의 생산 및 유통 기타 서비스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일컫는다.

생산 방식은 물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촬영하고 물건을 배달하는가 하면,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스스로 거리를 확보한다.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실전처럼 게임을 즐기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수 있으며, 3D프린터를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찍어낼 수도 있다. 금융 분야의 로보어드바이저가 인간을 대신해 투자 자문을 해주는가 하면, 의료분야의 인공지능(닥터 왓슨)이 암을 진단하고 법률분야에서도 인공지능(IBM의 ROSS)이 판례분석을 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생각되고 있던 음악, 미술 등 창조의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으며, 신문기사 작성, 피아노 연주, 상품판매장에서의 고객 응대 등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변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조 공장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 로봇 등이 결합하여 스마트 팩토리로 재탄생하였다. 아마존 에코나 구글 나우 등 가정마다 보급되고 있는 음성인식 챗봇은 조명, 청소, 요리, 방법 등 스마트 홈의 관리 센터가 되었다. 애플 페이, 삼성 페이 등 모바일 결제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는 새로운 상거래를 이끌고 있다. 경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가져온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가 새로운 경제 체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역시 의료 진단과 치료, 금융,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 바람에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인공지능과 지능 로봇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 경제 포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의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먼 미래가 아닌 현재만 보더라도 공장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해 쓰면서 4차 산업혁명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장 전체가 사람의 힘없이 오직 로봇만의 힘으로 돌아간다면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고 로봇에게 밀려 일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경기 침체 와중에 AI의 공격까지, 숨 쉴 틈 없이 미래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 칼럼 03

❖ 경찰행정과 객영길교수 / 2016년2월24일 대전일보 수요프리즘 인용

공익신고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 12월 인천에서의 11살 소녀 학대사건은 동네의 마트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소녀가 구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장기결석학생 전수조사가 행해지면서 2016년 들어 부친의 아들 시신훼손 사건, 부친여중생 딸 백골 방치 사건, 친모 폭행으로 숨진 7살 딸이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등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 언론에서는 아동 학대사건의 신고율이 일본의 68%, 미국의 60%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29%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다고 전한다. 지난해에는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예정자에 포함되었던 경찰관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반주를 곁들였고, 대리가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술이 부족함을 느껴 차를 세우고 혼자 주점으로 들어가 술을 더 마신 후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주책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갔는데,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로 이 경찰관은 집에서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만취 상태였고, 이에 지방경찰청에서는 이 경찰관의 승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과 감봉조치가 수반되는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서로부터 그의 아내가 다니는 직장 부근의 이면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있었으니 찾아와 위반사실을 확인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위반 장소로부터 20m 전방에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아내가 그에 못 미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위반사실을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여 관할 경찰서로 이첩된 것이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의 공통점은 모두 일반 시민이 법적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라는 점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 시민들의 공익 목적의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생활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요즈음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블로그를 찾는 방문자와 구독자가 많아지면서 블로그는 단순히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린 글 하나가 TV 광고보다 더 영향력이 높을 때가 있다.

단순히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을 지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법적 민 ·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예전에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파워블로거 B씨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파워 블로거인 B씨가 해당 식당에서 "질 좋지 않은 싸구려 고기를 사용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등심불고기 메뉴를 선택했는데 우둔이나 설도에 가까운 부위의 고기가 나왔다",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곳은 용서가 안 된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 많이 들어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나 댓글 한 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를 안겨 줄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인터넷 카페에 거짓 이용후기를 올리는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는 30대의 L이라는 남자는 M사의 광고를 맡게 되자,

자신의 광고주인 M사와 경쟁업체인 N사를 비방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에 가입한 뒤, "30대 여성이다. 친구가 N사를 통해 시술을 받았는데 부자연스럽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이처럼 허위에 근거하거나 지나치게 악의적인 게시 글을 쓴 경우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글을 쓰고, 한 발 더 나아가 네티즌 모두가 좀 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전이 확보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가 정립되어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에 공익 목적의 신고는 매우 바람직하며 장려되어야 할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현재 공익 목적의 신고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공익 목적의 신고에 대하여 기본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동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79개의 법률에서의 벌칙과 인허가 취소나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신고는 신고자에게는 당장 금전적 이득 등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편함과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공직자나 관련종사자 등에게 공익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공익신고의무자를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관히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 꺼리는 인식과 사회분위기,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 등 불이익 우려, 경찰이나 법정 등에 오고 가야 할지 모르는 불편함,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점 등이 그러한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나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 등은 공익위반행위의 증거확보 및 신고를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비밀보장, 오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정비가 이루어졌기에 향후에는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무엇보다 공익신고자를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자로서 존경하고 우대하는 문화적 풍토의 조성 및 인식의 개선노력이 없다면 그러한 기대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공익신고제도를 적극적 홍보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청된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웃과 사회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질서 있고 안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보도 01

❖ 자료제공 _ 대학 보도자료

충남도립대 - 계룡시 대학생 어학연수 공동 추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4주간 대학생 31명 싱가포르 어학연수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7월 27일 대회의실에서 하계 어학연수생 19명에 대한 선발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충남도립대학교의 하계 어학연수는 해외 인턴십 및 복수학위제 학생들의 어학 실력 및 현지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호텔관광외식과 강지는 학생 등 총 19명이 선발됐다. 특히 이번 하계 어학연수는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재학생들에게 영어회화능력 향상과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허재영 총장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단(단장 이승일 교수)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과 해외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립대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룡시와 공동으로 어학연수를 추진, 지역의 더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허재영 총장은 “앞으로 더 많은 도내 시·군과 공동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 도내 대학생들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계 글로벌 어학연수 선발 재학생 19명과 계룡시 국외 연수 대상에 선발된 대학생 12명 등 총 31명은 7월 15일 싱가포르로 출국,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싱가포르 디멘션 인터내셔널 컬리지(Dimensions International College)에서 어학연수를 받았다.



> 보도 04

❖ 김민경 _ cnsu2017@cnsu.ac.kr

해오름제의 뒷이야기

밋밋하고 딱딱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부족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박탈

지난 5월 18일 ~ 5월 19일 진행되었던 체육대회와 해오름제에 대하여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였다.

체육대회에서 체육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계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주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계주의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또한 체육대회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까지 축제와 함께 병행되는 것에 대해 1학년 재학생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으며, 2·3학년 선배님들도 축제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번의 해오름제는 좋은 기획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축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모처럼 재미나게 하루를 보내고 뛰어 놀아야 할 휴식터 같은 존재이며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장이 되어야 함에도 식상한 프로그램으로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였으며, 축제 일정에 대한 충분한 공고 등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시간에 제약이 많아 축제를 자유로이 즐기지 못한 채 많은 학생들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축제를 끝마쳐야만 했다.

내년에는 체육대회와 축제일이 겹쳐지지 않도록 각각 따로 하루씩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학교당국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해오름제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축제운영과정이 개선되어 보다 자유롭게 청춘의 꿈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운영진들의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 보도 02

❖ 황예슬 _ cnsu2017@cnsu.ac.kr

경찰 교육원을 가다! 현장체험프로그램 경찰행정과

지난 6월 22일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과(학과장 곽영길) 학생 20여명은 기말시험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I.M.P 경·학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아산 경찰교육원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안보전시관 견학과 호신체포술, 응급처치, 시뮬레이션 사격, 현직경찰관의 실탄사격 시범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모든 프로그램은 현직 경찰관들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하며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교육 후 “경찰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현직 경찰관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니 경찰공무원에 대한 나의 꿈을 한층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것 같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 보도 03

❖ 출처 _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검색

MT에서 장난삼아 치약사건 강제추행

피고인들이 대학 MT에서 동성 신입생의 배와 음모 부위에 치약을 바르고, 나아가 피고인 C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강간등치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 A, C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2017.5.11., 2016고합36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2. 02:5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모꼬지로 19에 있는 산과들에 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김철수(가명, 19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치약을 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배 부위에 치약을 펼쳐 바르고, 피고인 C는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촬영하면서 휴대전화 플래시로 피해자의 음모 및 배 부위를 비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성기가 보일 때까지 아래로 내리면서 “내려야지, 여기(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B 이리로 와, 뿌려, 이거이거 뿌려, 그리고 비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모 부위에 치약을 짰 후 손으로 비벼 발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A, B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배와 음모 부분에 치약을 짜서 손으로 수차례 비벼 바르는 장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설령 피고인들이 장난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앞서 든 여러 정황 및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좋겠고, 각 학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학교당국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학교식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학교식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점이 있다. 몇몇의 학생들이 “반찬에서 이물질이 나와 불쾌했던 경험이 있었다” “급식 아주머니들이 반찬들을 너무 적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실 본 기자도 매일 편의점에서 먹을지 학식을 사서 먹을지가 고민이 되곤 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학교식당에서 위생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배고픈 학생들을 위해서 밥과 반찬을 조금 더 푸짐히 주신다면 고민 없이 학교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싸가지’의 뜻!!

보통 욕할 때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싸가지라는 말의 뜻과 유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적·어원적으로는 ‘싸수’의 방언(강원, 전남)으로, ‘싸’와 ‘아’가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라 합니다. 동물의 새끼나 작은 것을 가리키는 접미사 ‘아지’가 ‘싸’와 결합하여, ‘싸’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처음 상태인 싸수를 일컫는 말이 되었고, 본래는 막 움트기 시작하는 싸의 첫머리를 가리키는 이 말이 일상에서는 비유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껌새나 징조를 가리키는 속어로 쓰이게 된 것이라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사람의 됬됨이를 볼 때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갖춘 사람을 최고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았는데, ‘사람의 됬됨이가 없다’라는 뜻에서 인의예지의 4가지가 없는 사람을 四(사)가지가 없다고 하였고, 그 발음이 된소리로 바뀌어 싸가지로 발음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싸가지(4가지)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인데,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 의(義)는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며,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며,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 ‘싸가지 없다’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음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입니다. 원래는 그 형편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미루어 그 사람의 앞날 역시 형편없으리라는 뜻이 담겼었지만, 요즘에는 ‘그 애는 대학까지 나왔다는 애가 어째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린 녀석이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것 좀 봐.’ 처럼 장래에 대한 부정적 징조보다는 단순히 눈앞에 벌어지는 행태가 형편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가지 없는 놈’이란 말은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로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전혀 쓸 수 없는 말은 아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어르신들이 경거망동하는 젊은이에게 혼내는 의미로 할 수는 있는 말이지만 새파란 것들이 어르신이나 손위 사람에게 썼다가는 ‘호x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욕이 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6월 26일, 드디어 SNS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대나무 숲이 만들어졌다. 대나무 숲의 관리자는 ‘안녕하세요. 충남도립대학교 대나무 숲입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학우 여러분들의 고민, 고충과 여러 사연들을 들어드리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는 개설 동기를 설명했다. 대나무 숲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타 대학들의 대나무 숲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여 크게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강전석 _ tit0850@naver.com

Journalism and Broadcasting Ministry Reorganization

Our university Journalism and Broadcasting Ministry has been reorganized from this year forth. Professor Kwak Young-gil is the new chief of the ministry and the system is changing. Broadcasting Ministry is largely being invigorated through music broadcasting three times in a day. If you want to listen any music with your friends, request on the ministry song name with the artist name.

Mass media functions as information delivery and makes public opinion occurs. “Let me change the three words. Not ‘Can see’ but ‘Very seems’.” These are the lines in the film ‘Inside Men’. The meaning is not so much different but the feeling differs when we accept. So, mass media must keep the objective attitude, and must be careful on the word choice. We will show you the newspapers which got fun and fairness, Professor Kwak said. ‘I will publish attractive newspapers’. You can expect.

❖ 강전석 _ tit0850@naver.com

인공지능

AI : Artificial Intelligence , 人工知能

1부 2부는 45호에 이어서

출처 : DAUM백과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인공지능이란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로 구분할 수 있다. 강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간처럼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라고도 한다. 강AI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 인공지능과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지각·사고하는 비인간형 인공지능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약AI는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주로 특정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나 의료분야에 사용되는 왓슨(Watson)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모두 약AI에 속하며, 자아를 가진 강AI는 등장하지 않았다.

약AI 분야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Very-Large-Scale Integration) 분야와 프로그래밍 분야에서의 큰 진전으로 일본과 미국에서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었다. 많은 연구가는 고밀도 집적회로 기술이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현재 지능형 컴퓨터는 병렬처리를 할 수 있는 내부구조로 만들어진다. 병렬처리란 수백만 개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기억장치, 입출력장치가 1개의 작은 실리콘 칩 안에 들어가는 집적회로를 여러 개 사용하여 기억·논리·제어 등과 같은 몇 개의 독립된 연산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컴퓨터는 이 연산들을 직렬 또는 순서대로 행한다. 즉 별개의 입력회로가 데이터를 각 기억장치에 저장하고 이 기억장치로부터 한 번에 하나의 정보가 중앙처리장치로 전달되어 처리되며 그 결과는 외부 출력장치로 출력된다. 이제까지 개발된 가장 빠른 컴퓨터가 1초에 약 100억 번의 연산을 할 수 있지만 거의 순간적으로 수많은 연산과 일반화를 수반하는 인간의 사고작용을 흉내 내기에는 아직도 느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인공지능 연구

인공지능 연구는 1940년대 현대적인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된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가들은 생각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수단으로서 계산 장치의 잠재성을 재빨리 간파했다. 수년에 걸쳐 정리 증명법(Theorem Proving)이나 체스 게임처럼 논리적으로 복잡한 일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의 성공은 컴퓨터가 고도의 정신작용을 다룰 수 있는 능력보다는 부호화된 정보를 극히 고속으로 반복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1980년대 말까지도 인간의 지능활동을 흉내 낼 수 있는 컴퓨터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연구는 의사결정과 언어 이해, 형상인식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유용한 몇 개의 업적을 남겼다.

전문가 시스템

컴퓨터는 지식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해 산술문제가 아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한다. 전문가 시스템은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조건-시행문(If-Then)’의 형태를 갖는 논리적 규칙들로 이루어진다. 이 규칙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얻어진 지식으로 만든다. 즉 전문가의 지식과 사고능력을 모방해 인간이 하는 전문적인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CNSUBC 충남도립대학교 방송국 방송활동



충남도립대학교 학생여러분들!

저는 현재 충남도립대학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경찰행정과 조민희라고 합니다. 새로워진 방송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대학신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희 방송국은 경찰행정과 광영길 교수님의 지도 아래 1학기 후반부터 방송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으며, 구성원은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 아나운서들이 선곡한 음악과 가벼운 멘트로만 진행을 하였으나, 현재는 페이스북에 ‘충남도립대학교 방송국’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이 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실명이나 익명으로 말하

고 싶은 사연들도 받고 있으니, 사연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방송국 페이지에 제보나 문의(041-635-6626)를 주시면 됩니다. ^^ 방송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방송시간은 [오전방송 : 8:30 ~ 8:50] / [오후방송 : 18:20 ~ 18:50] 로 정해질 예정이니, 이 시간동안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국은 앞으로 충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민희 아나운서 _ wag5115@naver.com



CNSU 충남도립대학교신문
NEWSPAPER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발행처 충남도립대학교 신문사 발행인 총장 하재영 사장 광영길 교수
신문편집국 국장 문은주(2학년) 신문취재부 기자 문형국(2학년), 김민경(1학년), 이혜진(1학년)
신문편집부 기자 강전석(2학년), 배지혜(1학년), 이다은(1학년), 황예슬(1학년)

기사제보

대표전화 041)635-6600
편집국 전화 041)635-6665
이메일 cnsu2017@cnsu.ac.kr
구독신청 041)635-6739